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토틱

04





고송정지(枯松亭址)

고송정이 있는 이곳은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김문기와 그의 아들 현석이 죽임을 당하자 손자인 김충주가 여러 곳을 떠돌다가 정착해 살던 곳이다. 1827년(순조 27년) 김충주의 9세손인 김차일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고송정'이라고 하였다. 고송정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김충주가 단종을 그리며 읊던 '망월암(望越巖)'이라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 올라 단종의 묘가 있는 영월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자 바위 아래에 있던 소나무가 말라죽었다는 일화에서 '고송정'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김충주가 이곳에서 숯을 구워 연명하면서 스스로 '숯 굽는 노인'이라고 불렀다고 하여 '탄옹고지'라고도 한다. 정자 서쪽에 '탄옹고지(炭翁古址)'라고 새긴 작은 바위가 있으며 동쪽에는 그 당시에 심었다는 향나무가 있다. 원래 건물은 없어지고 1936년에 후손들이 다시 그 자리에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사방이 개방된 정자를 세웠다. 현재 건물은 1992년에 전면 보수한 것이다. 경기도 기념물 제101호로 지정됐다.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58 ㉠

contents

- 04 특집 ① | 도심 순환버스 삼총사
- 06 특집 ②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하세요
- 08 생생도시 안산 | 안산시 소식
- 10 기획 ① | 안산 땅이름 이야기
상록구 성포동
- 12 기획 ② | 안산에 가보고 싶다
화랑유원지
- 14 기획 ③ |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주)유상
- 16 특특 명예기자가 간다
- 23 출동! SNS시민기자 | 생생 마을기자단, SNS시민기자단 등
- 24 의회소식 | 안산시의회
- 26 우리동네 | 상록구와 단원구
- 28 안산 생생 맛집 | 고기 맛집
- 30 참여마당 | 독자투고, 나비잡
- 32 알림마당 | 4월 추천 도서, 문화소식
- 35 4월 독자 퀴즈, 일자리 정보

Vol.500



coverstory

안산 풍도 바람꽃

국내 야생화 명소 100곳 중 하나인 안산 풍도에 이른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야생화가 얼굴을 내밀며 봄을 알리고 있다. 샛노란 복수초와 분홍색 꽃잎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노루귀, 풍도대극 등 아름다운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싱그러운 봄기운을 전한다. 사진은 풍도에서만 볼 수 있는 '풍도 바람꽃'이다.

사진 ● 안산시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발행인 안산시장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대변인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E-mail ansannews@korea.kr

홈페이지 안산시홈페이지 ▶ 안산소개 ▶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무료신청

@ansancity3 안산시청
 @ansancity cityansan
 ansancity 안산시유튜브
 ansancity

안산톡톡을 매월 모바일로 받아보는 방법

- ① 카카오톡 친구 '안산시청' 검색
-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버튼 클릭
- ③ 완료



스마트 폰으로도
<안산톡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도심 순환버스 삼총사 안산 곳곳 누빈다~! 안산시 도심 순환버스 3개 노선...완전 개통

‘삼색’으로 물든 도심 순환버스

남부권 ‘해양-Blue’, 서부권 ‘맑은-Green’ 노선에 이어 동부권 ‘예술-Orange’ 노선이 개통하면서 올봄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3개 노선이 완전체로 운행에 나섰다.

지난 3월 21일 상록수역 광장에서는 동부권 순환버스 ‘예술-Orange’ 60번(A·B) 노선 개통식이 열렸다. 남부권과 서부권에 이어 도심 동부권역을 순환 운행하는 60번(A·B) 노선은 총 10대가 배차돼 15분 간격으로 하루 65회 운행한다. 노선은 중앙역을 가·종점으로 ‘월피동~부곡동~일동~상록수역~본오동~사동~상록구청~고잔고’ 등을 순환한다.

수도권 최초 수요자 중심 교통정책으로 평가받는 도심 순환버스는 지난 40년간 이어진 불편한 시내 버스 노선을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도심 어디서든 10분대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는 앞서 2020년 12월 남부권 순환버스 ‘해양-Blue’ 80번(A·B) 노선 운행을 시작했고 지난해 5월에는 서부권 ‘맑은-Green’ 70번(A·B) 노선을 개통했다. 남부권 ‘해양-Blue’ 80번(A·B) 노선은 사동 그랑시티자이아파트를 가·종점으로 ‘안산문화광장~중앙역~한대앞역~일동~상록수역~본오동~사리역’을 순환, 지난 3월 초부터는 2대를 증차 운행 중이다. 배차간격은 기존 15~20분에서 10~15분으로 평균 5분이 단축됐고 운행 횟수도 하루 총 114회에서 130회로 늘었다. 중앙역을 가·종점으로 하는 서부권 ‘맑은-Green’ 70번(A·B) 노선은 ‘고잔신도시~초지역~선부동~성포동’을 순환 운행한다. 현재 남부권과 서부권 순환버스 이용객은 각각 하루 평균 5천500명, 3천명에 달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3개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로 안산시 전역의 역세권화가 이뤄졌다. 향후 안산에 들어설 GTX-C 상록수역과도 시너지를 발휘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TX-C 상록수역 잇는 도심 순환버스...“시너지 기대”

안산시 상록수역은 지난 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실시협약안에 추가역으로 반영됐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수원시 수원역 등 10개 정거장 구간 74.8km를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서 최고 시속 200km(영업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초고속 철도다. 국토부가 발표한 GTX-C 노선 실시협약안에는 상록수역을 포함, 왕십리역·인덕원역·의왕역 등 4개 추가역이 반영됐다.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용은 약 4조3천857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시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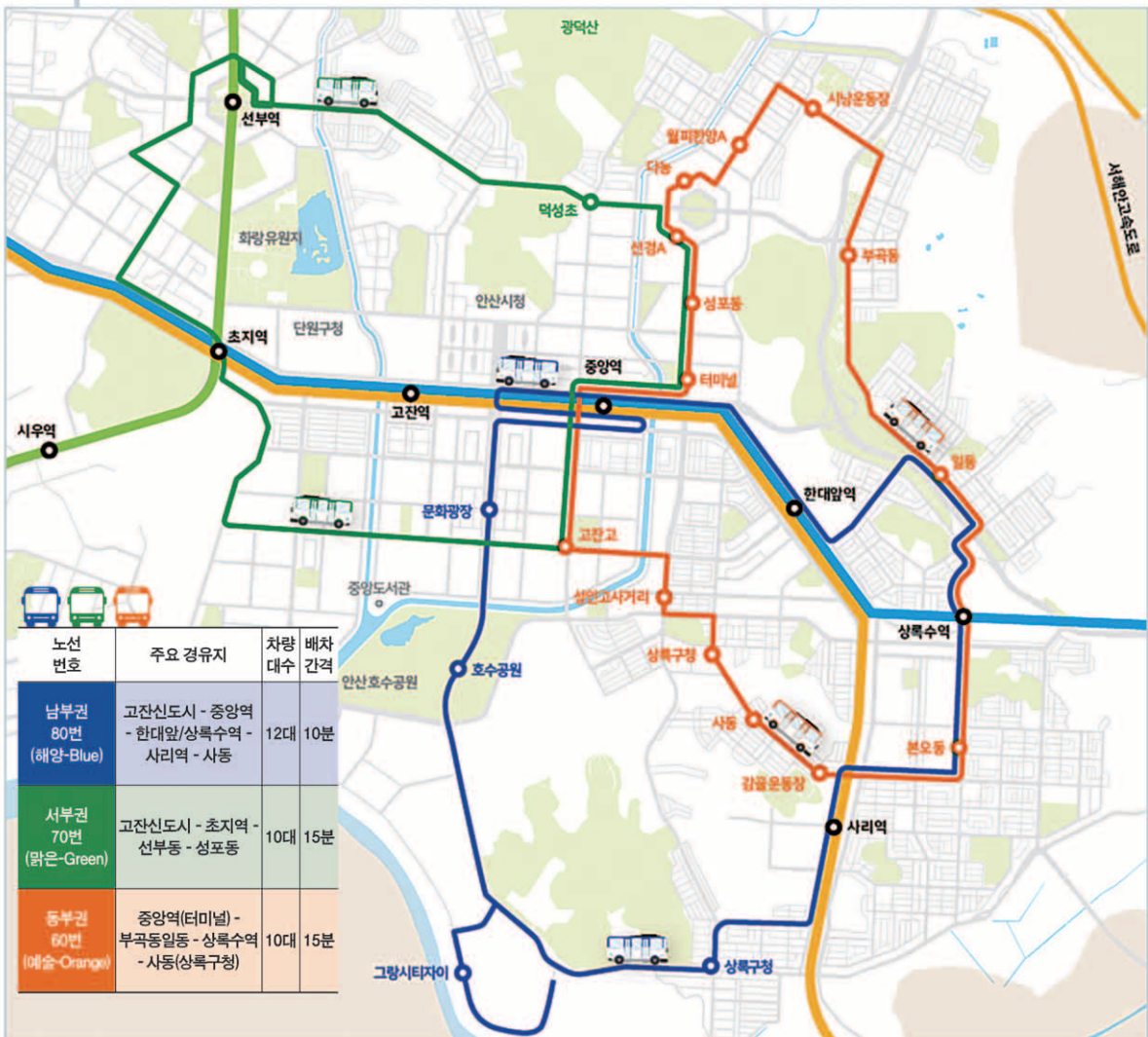




도심 순환버스
노선도

안에 따라 2027년(예정) GTX-C 노선이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기업유치 등 도시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GTX-C 상록수역과 앞서 운행 중인 순환버스 80번(A·B)노선, 70번(A·B)노선 그리고 60번(A·B) 노선까지 연계, 운행되면 안산시 도심 전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안산시 대중교통과 031-481-2955



“올해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하세요~!”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안산시가 학기당 100만원 한도에서 대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은 전국 지자체로 지속 확대되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올해 1학기 지원대상은 3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하위 6분위 등이다. 소득 하위 6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1(저소득)~10(고소득)분위 기준을 준용한다.

대상자인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을 반드시 완료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이다. 신청하려는 학생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6월 30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혜 대상자도 4단계인 안산시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이 대학생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속 확대, 지속 협의

안산시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1단계 대상별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시행 초기 2020년 지원 대상 2천538명에게 15억 8천739만9천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을 2~3단계로 확대, 지원했다. 특히 2021년도 1학기에는 지원 대상이 2단계인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해 2학기에는 지원 대상이 3단계 소득하위 6분위로 확대되어 총 2천 67명에게 14억 4천40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지원’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6천명 이상의 대학생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소식 1

안산시, 국제경쟁력 강화 ‘상호문화도시에서 국제안전도시까지’

안산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공인을 받으며 국제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0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21년 국제안전도시,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잇따라 인증 받은 것이다.

유럽평의회(CoE·Council of Europe)로부터 지정된 상호문화도시시는 국내에서 처음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이뤄낸 것이다.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다문화도시에서 상호문화도시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 세계 주요 상호문화도시인 26개 도시 가운데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네 번째로 높은 80점을 받으며 우수성도 입증했다. 올해는 ‘상호문화 특례시’로 발돋움할 계획도 세운 상태다.

국제안전도시의 경우 안산시는 전 세계에서 430번째이자 국내에서는 24번째, 경기도내에서는 5번째로 인증 받았다. 앞서 안산시는 2013년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교통안전 ▲폭력예방 ▲자살예방 등 12개 분야 200여개 사업을 발굴·추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손상예방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안산시는 선포식을 통해 아동권리 존중·실현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오는 2026년 3월 2일까지 4년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유니세프 협력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안산시는 앞으로 ▲참여와 시민의식 ▲놀이와 여가 ▲교육환경 ▲보건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6대 영역 21개 전략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안산시 시민안전과 031-481-2427
안산시 대변인 031-481-2046

소식 2

어린이 체험 전시관 ‘어린이상상스페이스’ 개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형 체험 전시관 ‘와~상상나라 어린이상상스페이스’(어린이상상스페이스)가 안산 와~스타디움에 문을 열었다. 어린이상상스페이스는 와~스타디움 북측 540㎡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어린이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감응형 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체험관 등 총 9종의 체험구역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작용영상·미디어아트 등 빛을 이용한 공간 ▲대형블록·실내암벽등반 등으로 신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됐다.

어린이상상스페이스 이용시간은 10~12시, 13~17시로 월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방역조치 일환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회당 입장인원을 30명 이내로 한정한다. 또 이용 권장연령은 6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상상스페이스 인스타그램 ‘ansan_sspace’를 참고하면 된다.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3439
와~상상나라 어린이상상스페이스 031-369-1845



소식 3

안산시청 펜싱선수 서지연·최수연 국제대회서 우승



서지연(왼쪽 첫번째), 최수연(왼쪽 두번째) 선수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 소속 국가대표 서지연, 최수연 선수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2 여자 사브르 월드컵 대회'에서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열린 결승에서 두 선수는 스페인을 45대 31로 완파하고 우승하는데 기여했다. 한국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팀 소속 서지연, 최수연 선수는 2020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사브르 첫 올림픽 단체전 입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국제펜싱 연맹 조지아 트리빌리 월드컵'에서도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펜싱의 저력을 보여줬다.

안산시청 펜싱부는 이현수 감독과 최명진 코치 지도 아래 서지연, 이라진, 최수연, 홍세나 등 국가대표 선수 4명과 김민정, 김지영, 김혜지, 최민서, 최혜정 등 유망한 선수가 몸담고 있다.

앞서 펜싱부는 대한펜싱협회가 선정한 '2021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펜싱 실력과 함께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시 체육진흥과 031-481-2109

소식 4

국내 최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7월 개관 예정



안산시의 40년 산업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난 3월 24일 준공식을 가졌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경기도 최초로 문을 열게 되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화랑유원지 남측 1만3천여㎡ 부지에 총 250억 원(국비 28억·도비 21억·시비 201억)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5천 160㎡ 규모로 조성됐다. 각종 산업 유물 450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경기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기아 경3륜 트럭 T-600(5호) ▲동주염전 소금운반용 궤도차(10호) ▲목제 솜틀기(11호)를 비롯해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각종 유물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이 될 예정이다. 오는 4~6월에는 예약제 방식으로 시범운영에 나서며 관람료는 무료다.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3099



땅이름에서 피어나는 안산① 상록구 성포동(聲浦洞)



성포리(1978년)
노적봉 도당집(1970년)

성포동은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성곶포촌리(聲串浦村里)였다가 조선 말기에 성포리로 바뀌었다. 1912년 2월 5일 군내면 점성리(占星里)와 성포리를 통합하면서 성포리가 됐다.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안산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됐고 4월 1일 군내면이 수암면(秀岩面)으로 통합, 개칭되어 시흥군 수암면 성포리가 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성포리가 되면서 옛 점성리 지역은 일동(一洞)으로 분리되어 나갔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 전까지 성포동 지역의 어업 전진기지로 성곶포(聲串浦)가 있던 곳이다. 만선 귀항하는 어부들의 소리가 컸다 하여 소리성(聲)자를 써서 성포리로 불리다가 성포동이 되었다. 성포동 자연 취락은 신도시 개발 때 모두 폐동되어 예술인아파트, 주공10단지, 시외버스터미널 등으로 변모됐다.

갱변마당 현 상록구노인회관 근처에 있었던 400여 평 정도 되는 마당. 해안가에 접해 있어 갱변마당이라고 했고 노적봉 당제를 지낼 때 이곳에 차일을 치고 명석을 깔아 굿마당을 펼쳤다.

노적봉(露積峰) 노적가리를 쌓은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143m 산인 노적봉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삿갓처럼 생겼다고 하여 가사미산(可使美山)으로 개명해 불려오다가 1994년 9월에 일제 청산 차원에서 노적봉이라고 표기된 조선시대 지도와 고문서를 증거로 지금의 이름을 찾아 부르게 됐다.



성머리(聾頭) 성머리는 마을 앞에 안산천(옛 이름 개교천)이 흐르고 6·25 한국전쟁 전에는 성곶포(聲串浦)라는 포구가 있었다. 이곳은 현 스타프라자에서 서남쪽으로 약 300m 남쪽으로 약 400m에 이르는 지역이 나루터였는데 풍수로 보아 성포리 머리 부분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나루터는 이후에 농경지로 변모되어 농촌이 됐다. 성머리는 1979년 폐동 후 예술인아파트를 비롯해 주공4단지, 주공10단지로 변했다. 폐동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 15일경이면 노적봉 중턱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도당제(都堂祭)를 지냈다.



헛가마자리
노적봉 도당지 신목(神木)

헛가마자리 도깨비가 많이 나타나던 자리다. 소는 짐승인데도 그곳을 지나갈 때면 발을 사뽀사뽀하며 걸었고 방울도 흔들지 않고 숨죽여 지나가던 자리다. 지대가 우묵하고 습기가 많아 음침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던 자리이며 그 자리에 소를 묶어두면 사람만 보면 빨리 데리고 가라고 울부짖기도 했다고 한다. 현 성포도서관 뒤쪽이며 지금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노적봉 도당지(都堂址) 노적봉 노송 숲 가운데 있으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978년까지 도당제를 지내고 원주민들이 모두 이주하면서 도당제는 중단되고 도당집은 허물어져 버렸다. 조선시대에 군수가 제를 올리기도 했던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마을의 정신적 수호신이었다. 2002년 3월 16일 안산시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역사 가치와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안산시향토문화재로 지정됐다.

이현우 안산문화원 향토사전문위원







‘안산’에 가보고 싶다 화랑유원지

올해 안산은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매력 발산에 나선다. 2020~2021년 안산 방문의 해에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부도와 안산 9경(景)을 중심으로 안산의 숨은 보물 같은 장소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화랑유원지,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자연 휴식공간

안산 도심에 자리한 화랑유원지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유원지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푸르른 하늘과 화랑호수를 배경으로 사람과 자연, 철새가 어우러진다. 도심 속 자연 휴식공간인 화랑유원지는 각종 문화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어서 안산시민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화랑유원지 안에는 화랑호수와 산책로, 경기도미술관, 단원각, 잔디광장 등 시민을 위한 공간들로 꾸며져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복합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랑호수에는 갈대, 부레옥잠, 연꽃 등이 서식하고 있어 수생 식물 관찰이 가능하고 겨울 철새가 떼를 지어 찾아오는 등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된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 벚꽃 명소로도 유명하다. 화랑호수에 있는 단원각에서는 매년 새해맞이 타종 행사가 열린다.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





진공증착필름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주)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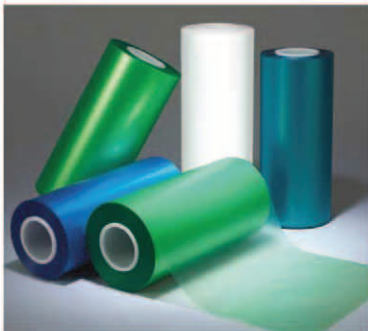
안산시는 2021년 6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안산기업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으로 안산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주요 기업을 소개한다.

㈜유상, 혁신 기술과 차별화된 가치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포장 전문기업

㈜유상은 일반용 필름(Casting Polypropylene Film)과 산업용 필름을 제조하는 필름 사업을 펼치며 포장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라비어 인쇄, 압출코팅(압출기에서 합성수지를 필름상으로 압출하면서 원지에 코팅하는 방법), 드라이 라미네이션, 슬리팅(slitting) 등 여러 제조 과정을 거쳐 식품, 생활, 산업용 포장재를 제조하는 연포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76년 8월 서울 영등포에서 유상공업주식회사로 창립한 (주)유상은 안산스마트허브가 조성되던 1984년 9월 연포장재 제품 생산을 위한 반월공단 제1공장을 세웠다. 이후 서해안 요충지로서 안산스마트허브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최적의 물류 인

전자재료 보호용필름





생산제품사진

프라를 갖추고 있고 계열별로 관련 공장을 집단화 설계, 배치할 수 있어 동종업계 간 상호 경쟁 및 협력이 용이한 점 등을 강점으로 안산에 정착해 기업 경영을 하게 됐다.

(주)유상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혁신으로 현재 사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규 첨단 필름 소재 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면서 차별화된 포장 제품을 제공하는 포장 전문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한국 식품포장 산업의 성장을 함께 해온 (주)유상은 연포장 사업에서 국내 포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연포장 대표사업인 그라비아 인쇄 가공과 드라이 라미네이션, 압출코팅, 엠보싱(플라스틱, 섬유, 종이, 알루미늄 등 표면에 요철 문양을 만드는 가공법) 등 가공 공정 전반에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사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유상은 현재 식품포장용 CPP(Cast Polypropylene) 필름과 IT소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자재료 보호용 CPP 필름을 생산 중이다. 또 CPP 및 PET필름에 알루미늄을 증착시킨 CPP와

증착 PET를 생산한다. 전자 재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최초 개발, 상용화된 CPP 필름은 업계 최초로 3차원 이물검출기, 첨단 여과 시스템, 클린룸 등 설비 환경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어 국내외의 우수 고객사로부터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주)유상 관계자는 “제품 품질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원천기술 및 특허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능성 포장재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첨단소재 보호용 필름과 다용도 고점착 보호용 필름 등 고기능성 산업용 필름 분야에서도 미래 산업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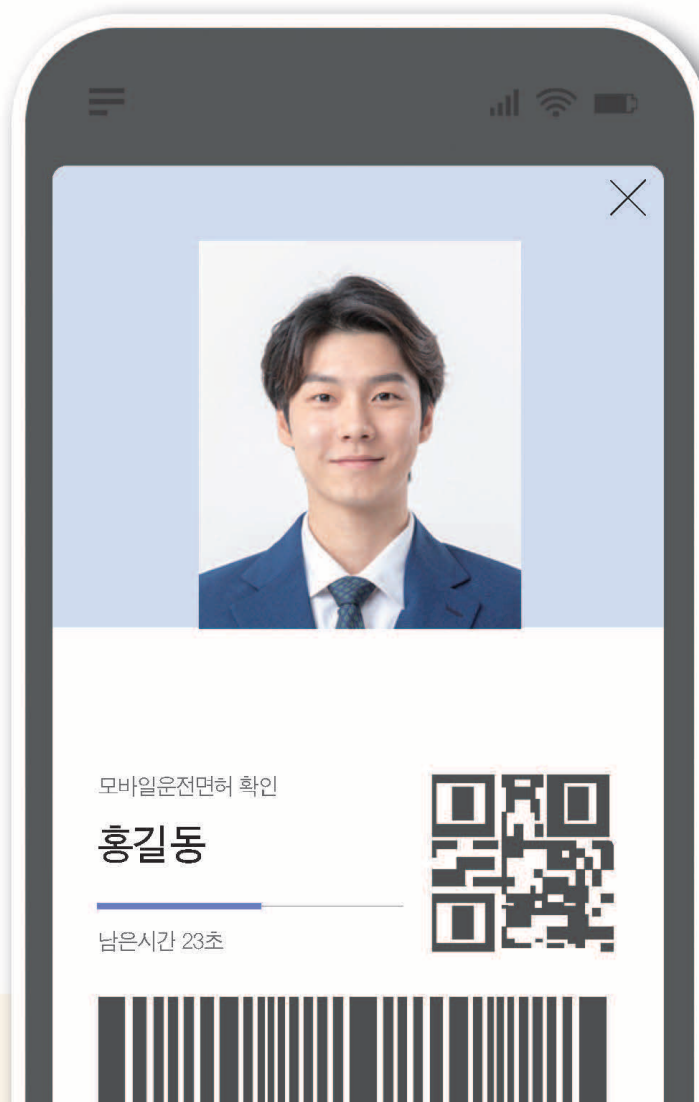
또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힘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단원구 감촌로 271-16 ☎
자료제공 ● 안산상공회의소

내 손안에 다 있네?

모바일 신분증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모든 것

이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주점, 식당 등에서 신분 확인을 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분증은 꼭 소지해야 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컸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덕분에 안전성도 높아졌다. 한층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소개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실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고 그 진위를 보증하는 서비스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분 확인 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이 화면에 표시된다. 공공기관 민원처리부터 금융업무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서비스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플랫폼 PASS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는 6월까지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상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IC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이다. IC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원확인 후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1회용 발급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스마트폰을 교체한 경우에도 방문 후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도난, 분실해 신분증 도용이 의심될 때는 1688-0990으로 신고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도난분실신고' 항목에서 인적 사항을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은 남색이며 재질은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표기되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차세대 전자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및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신청자나 병역미필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국내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앱에서, 국외 온라인 신청은 영사민원24에서 하면 된다. 여권을 도난이나 분실하였을 때는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해 습득물 상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신고한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안산시 민원여권과 031-481-2980
권소희 명예기자 estateksh@naver.com



세월호 참사 8주기... 온라인 추모 공간 '여덟 번째 봄'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온라인 추모 공간 '여덟 번째 봄'을 오는 4월 30일 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추모 공간은 ▲8주기를 노래하는 천인합창단 ▲4.16을 기억하는 노래들 ▲사진 공모전 ▲기억과 약속의 길 ▲여덟 번째 봄 in 안산 ▲4.16 기억상점 ▲별에게 보내는 편지 '노란 우체통' ▲4월의 리본 카툰 테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특히 별에게 보내는 편지 '노란 우체통' 게시판은 시민 누구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글을 남길 수 있다. 416재단에서도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416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추모 글을 남길 수 있다.

416안산시민연대 등은 오는 4월 16일 열리는 4.16세월호 참

사 기억식에 앞서 전날 1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8주기 기억문화제에서 천인합창단과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 하는 합창 주크박스 뮤지컬 '다시, 빛' 공연을 펼친다. 또 노란리본 매듭 팔찌, 생명안전공원 에코백 홍보 키트, 노란리본 도예목걸이, 노란리본 유리공예 코스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마을공동체 노란리본 물결운동은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을 특성에 맞게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4.16기억 마을모임 등 마을공동체 10곳 이상 참여를 목표로 노란꽃모종 나눔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5월 14일에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예술 퍼포먼스로 4.16세월호 참사 기억을 표현하는 4.16청소년창작경연대회 '별꿈'이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추모 공간 '여덟 번째 봄' www.416spring.com
재단법인 416재단 416foundation.org
윤하정 명예기자 gkwjd01@naver.com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문화제 <다시, 빛>

시기 : 2022.4.15.(금) 19~21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구분	시간	내용
사전마당 (17~19시)	체험 프로그램	- 노란리본 매듭 팔찌 - 생명안전공원 에코백 홍보키트 - 노란리본 도예목걸이 - 노란리본 유리공예 코스터 등 체험
	청소년 행사	- 미정
본 마당 (19~21시)	기억 문화제	- 인사말 - 8주기 주제영상 - 생존학생 편지글 - 공연
	기억공연	- 천인합창단과 배우가 함께하는 합창 주크박스 뮤지컬 <다시, 빛>

아이들이 머물던 기억교실...영원히 기록되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 지정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비극의 현장이자 세월호 참사 아픔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이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

단원고 4.16기억교실(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거의 똑같은 크기와 모습으로 복원한 곳이다. 참사 직후 한동안 단원고에 머물던 기억교실은 몇 차례 보관 장소를 옮긴 끝에 지난해 4월 문을 연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단순히 단원고 교실 모습을 재현한 장소가 아닌 4.16기억저장소 기록을 토대로 창문과 문틀, 물당까지 철거해 원형 그대로 복원한 공간이다.

2014년 4월 16일 시간을 멈춘 교실은 당시 참사의 비극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자 희생자 261명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이다. 많은 시민이 이곳을 방문해 아이들의 삶과 당시 절실한 슬픔의 시간을 상상해 보며 참사 이후 다시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과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보존, 복원, 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억교실 기록물은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2학년 10개 교실과 1개 교무실 안에 칠판, 게시판, 교실 천장, 메모, 책걸상, 복도에 걸린 그림 등 총 473점이다.

국가기록원은 지정 고시에서 “기억교실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중요 사건에 대한 기록물로 당대 교육 문화와 재난을 둘러싼 집합 기억의 공간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 지정은 기록관리 민간단체 4.16기억저장소와 4.16민주시민교육원이 함께 이룬 민·관 협업 성과물이다.

이지성 4.16기억저장소 소장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뛰어놀던 공간을 복원시키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행복했다”며 “기억교실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기록하고 목록화한 결과물로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도 등재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기억전시관에서는 3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암전 전시 ‘빛처럼 내려와’가 열린다.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는 작가 55명의 구술증언록 ‘그날을 말하다’ 내용을 신영복체를 사용해 붓글씨로 쓴 작품 전시 ‘그날을 쓰다’가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교사 및 학생자치회 임원 연수

“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공부하기 딱 좋아요!” 안산용신학교, 성인학습자들의 즐거운 배움터

동아리-캘리그라피
동아리-사물놀이



모든 학교가 올해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어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안산용신학교도 교실 문을 활짝 열었다. 겨울방학이 끝난 학교는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하다. 아직 마스크는 벗지 못했지만 공부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1987년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학으로 시작한 안산용신학교는 지금까지도 성인학습자들의 즐거운 배움터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산용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다양하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다가 어느 날 버스 손잡이에 붙은 안산용신학교 홍보를 보고 달려온 학습자, 도저히 혼자 올 수 없어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찾았을 때의 두근거림을 잊지 못하는 학습자, 머느리와 함께 찾은 학습자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그날의 용기’ 덕분에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됐다고 이곳 학습자들은 말한다.

안산용신학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중학교 25명, 초등학교 6명 등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76명이 초·중등 학력을, 400명이 한국어 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만학도들의 열정은 여가서 끝이 아니다. 중학교과정 졸업자 25명 중 고졸 검정고시



2022년 졸업식

응시 예정자 8명을 제외한 17명 전원이 인근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최애자 졸업생은 “안산용신학교에서 중학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기에 고등학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선생님이 학습자 눈높이에 맞춰 수업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게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기쁨이 매우 크다”며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공부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옥 안산용신학교장은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이어온 학습자와 졸업생들에게 칭찬을 보냈다”며 “용신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일반 초·중학교 학력 취득과 고등학교 진학 자격이 주어진다.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글부터 배울 수 있고 도전하는 분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움에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 비로 공부할 적절한 시기이다. 공부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안산용신학교에서 느껴보자.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동아리 핸드벨
2022 졸업식



가족이 가꾸는 주말농장 4월 봄을 맞이하는 도시민의 ‘도시텃밭 일구기’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파릇파릇 새싹이 온 산과 들에 너울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긴 겨울을 뚫고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작은 텃밭이나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 등을 심는 도시민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올해 봄을 맞이하는 도시농업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심 속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 등 식물을 키우는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면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절과 대기 정화 등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농업 종류로는 주말농장과 베란다, 옥상 등 텃밭을 비롯해 학교 공터를 활용한 식물 재배 등으로 다양하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키우는 화분을 포함해 힐링 오피스, 벽면 녹화, 치유 농업 등 활동 등도 도시농업에 속한다. 현재 도시농업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메트로팜’이나 ‘아쿠아포닉스’ 등 미래 도시농업 사례로도 발전하고 있다. 안산에는 신안산대학교 부근 단원주말농장 1천822구획과 초지역 4번 출구 부근 초지주말농장 756구획, 화랑유원지 안에 있는 유원지주말농장 786구획, 한대앞역 주변에 있는 상록주말농장 165구획 등 총 3천529구획에서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재배작물은 자유지만 일부 제한되는 것이 있다. 월동작물인 시금치, 봄동, 마늘, 양파 등과 주변 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성 식물, 키가 큰 작물은 피해야 한다. 특히 비닐 피복,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분양 면적은 구획당 16.5㎡(5평)로 경작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이 스스로 텃밭을 가꾸며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고향 작물 재배도 가능하다. 안산시 화랑유원지 안에 일부 구획을 외국인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일명 외국인 주민 공동체 ‘고향 텃밭’이다. 개방 면적은 23구획으로 작지만 화랑유원지 주말농장을 방문하면 외국인 주민들이 가꾸는 외국 경작물도 직접 구경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가꾸는 주말농장은 해마다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성장 중인 도시농업은 우리 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정착하고 있다.

주말농장이 아니더라도 올봄 집안 곳곳에 작은 나무와 농작물을 심어보면 어떨까?

김효경 명예기자 poet-hk@hanmail.net

2021년 단원주말농장 모습



2022 안산시 틱톡 영상 공모전

공모주제 안산시와 관련된 모든 영상

참가자격 제한 없음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작품규격 15초 ~ 60초 길이의 세로 영상

활동혜택 7만원 지급
(선택된 작품에 한해 1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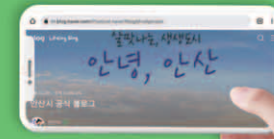
접수기간 상시접수(-12/16)

접수방법 영상 및 참가신청서 이메일 (tiktokas@naver.com) 접수
* 신청서식 안산시청 홈페이지 > 세소식라운 가능

기타문의 안산시청 대변인실 (031-481-2054)



출동! SNS시민기자






+ 인치광 기자

#안산 다문화거리 맛집, 인도 음식점 편
<https://blog.naver.com/cityansan/222679741907>




+ 김효경 기자

#안산, 오소가게 카페 바바카멜을 다녀오다.
<https://blog.naver.com/cityansan/222669730230>




+ 이금순 기자

#안산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성호박물관
<https://blog.naver.com/cityansan/222674145786>




+ 김혜연 기자

#안산시 고잔동, 여기저기 3코스! <안산문화광장>
<https://blog.naver.com/cityansan/222674143510>



안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오는 4월 8일까지 1회 추경안 포함
안전 심의 돌입

안산시의회가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18일 동안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 일정으로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제2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오후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 지난 3월 29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안전 심사를 실시한 뒤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이어 4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4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전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전은 총 39건인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1637억 1948만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안산도시개발(주)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 안산도시개발(주)는 안산시, (주)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가 출자한 기업으로 안산시와 시흥시, 화성시 사업권역에서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집단에너지)을 공급한다. 또한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 '수소e로움' 운영과 수소 시범도시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며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단원구 침단로에 위치한 안산도시개발(주)는 고잔 신도시 건설과 함께 1995년 민·관 합작으로 설립됐다. 자체 집단에너지 설비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 열 및 연료전지, 복합발전소 발전 배열 등 다양한 외부 저가 열원을 지역난방에 활용해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HUCES, 미래엔 인천에너지(주) 등 집단에너지 관련 업체와 열 연계 사업도 추진하면서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안산도시개발(주)는 올해 공동주택 열 공급세대 수 10만7천 세대, 연간 열 공급량 110만Gcal(기가칼로리) 등으로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열 수송관 성능 및 품질 개선 노력으로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난방 사업자에 비해 약 10%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난방을 공급 중이다.

안산도시개발(주)는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는 물론 수소 시범도시 구축 및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 등으로 수소에너지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저탄소 에너지 자립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도시개발(주)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강화사업 등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현황 열+전기(역송)	현재	예정
공급지역	안산 고잔 신도시(신길지구 포함) 시흥 배곧지구 화성 송산지구(동측)	화성 송산지구(서측, 남측) 시흥 MTV(반달섬, 거북섬) 3기 신도시 (신길2, 장상지구, 시흥거모)
공급세대 (공동주택)	10만 7천 세대	20만여 세대(2033년 기준)

안산시 단원구 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 031-413-2488



소셜 '상록수' 무대 '상록구'

해양동 봄꽃 식재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해양동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센터 일대 아파트 단지 등에 봄꽃 3천여 본을 식재했다. 지난 3월 23~24일 이틀간 진행된 꽃심기 행사에는 새마을회, 통장협의회, 비르게살기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동행량이 많은 구역에 팬지, 비올라, 테이지 등 다양한 봄꽃을 심고 화단 곳곳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봄꽃 식재로 주민에게 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향긋한 꽃내음을 선사했다.



성포동 주민자치 꽃피울 성포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성포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3월 24일 주민소통 공간이자 주민자치를 꽃피울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예산 총 76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2019년 9월 착공한 성포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4월 준공됐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청식을 미뤄왔다. 성포동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천805㎡ 규모로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교실, 대회의실, 성포동 예비군 동대사무실 등으로 활용된다.



사이동 직접 끓인 영양죽 배달로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까지

사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18일 독거 어르신 30가구에 직접 끓여 만든 영양죽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한 우리 사이 죽 나눔' 활동을 펼쳤다. 혼자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최대한 접촉하며 매일 영양죽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다.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



고잔동 싱그러운 꽃과 함께 본격적인 봄맞이

고잔동행정복지센터가 봄을 맞아 주민 왕래가 잦은 소생길~단원로 일대에 팬지, 데이지, 비올라 등 봄꽃 2천 본을 지난 3월 24일 식재했다. 고잔동 일촌가드너와 통장협의회 등 주민 25명은 겨우내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활짝 핀 봄꽃을 심어 소생길을 지나는 주민에게 봄 향기를 선물했다.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소생길 일대 아름다운 마을 정원은 올해도 일촌가드너의 따뜻한 손길로 가꾸어져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부동 종이 없는 회의로 친환경 실천!

대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월 22일 열린 정례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이 없는 회의’는 위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미리 받은 회의 자료만을 갖고 참석해 빔프로젝트로 자료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회의 집중도를 높인 것은 물론 문서 출력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됐다. 대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작은 변화지만 저탄소 녹색생활에 앞장서는 등 ‘종이 없는 회의’를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백운동 민원실 수직정원...주민 힐링 공간 탈바꿈

백운동행정복지센터가 최근 민원실 안에 수직정원을 설치해 주민에게 마을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직정원은 실내에서도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수직정원에서 정화된 공기와 식물의 푸릇푸릇한 색감은 코로나19로 지친 방문객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고 있다. 민원실을 찾은 한 주민은 “실내에서 숲을 보면서 상쾌한 공간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안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안산 생생 맛집

고기
맛집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맛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먹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맛집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찾아가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 맛! 입안에서 퍼지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안산의 수준 높은 요리 찐 맛집을 알 수 없을까? 이번 '안산 생생 맛집'에서는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 맛집을 소개하겠다. 안산의 믿을 수 있는 생생 고기 맛집으로 출발~!

갈비락(이동)

갈비명가 전통을 이어온 담백한 숯불갈비의 진미를 느낄 수 있다. 소갈비와 돼지갈비가 메인이며 갈비탕, 함흥냉면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보약에 가까운 한약 엑기스 양념소스로 숙성한 갈비는 숯불에 구워지면서 풍미를 더해 입에 넣는 순간 육즙이 가득 사르르 녹는다.



상록구 서암로3길 1 (사동)
031-408-9595/2층 100석, 3층 100석
주차장 1층 전용/휴무 명절

술뚜껑 삼겹살

안산 삼겹살집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대표 메뉴는 와인 삼겹살이다. 개업 당시 와인에 재운 삼겹살을 개발한 것이 대박을 쳤다. 부담 없는 가격에 술안주로 더없이 훌륭하다. 최근에는 갈비찜 메뉴를 추가했다. 적극 추천하는 만큼 맛을 보장한다.



단원구 광덕대로 145 (교잔동)
031-480-3010/좌석 140석
주차 건물 지하

쉐프의 정육식당

국내 몇 안 되는 워터 에이징 처리를 한 무항생제 고기를 연탄불에 구워먹는 고기 전문점이다. 외관은 마치 고급 이태리 음식점 같다. 손님이 식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장님과 셰프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어 대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상록구 감골1로 35 (사동)
031-417-1004/좌석 40석
주차 가능/휴무 명절





양푼 왕갈비

양푼이에 매콤한 갈비찜이라는 아이디어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운 갈비찜 전문점 24시 양푼 왕갈비! 이곳 갈비찜은 갈비와 함께 들어간 야채가 어우러져 맛이 더 환상적이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매운맛 정도는 4단계로 조절 가능하다.



상록구 송호1길 5 (이동)/031-406-7800/1층 48석, 2층 48석/건물 앞 주차 가능/휴무 명절

육덕봉

주메뉴는 소한마리와 돼지한마리이며 추천 메뉴는 소한마리+한우육회와 돼지한마리+한우육회다. 육덕봉에 가면 두 번 놀란다. 품질 좋고 맛 좋은 고기에 놀라고 반찬이 비워지기 전에 채워주는 서비스에 놀란다.



상록구 충장로6길 22-2 (이동)
031-409-8954/좌식 48석, 의자식 24석
휴무 명절



코리안 왕돈가스

생고기로 만든 엄지 척 맛있는 왕돈가스를 맛볼 수 있다. 모든 메뉴가 다 맛있지만 왕돈가스+생선가스+함박스테이크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코리안 정식을 추천한다.



단원구 와동공원로 106 (와동)
031-403-3228/좌식 40석
주차 주변 도로/휴무 첫째, 셋째 화요일



태능골

대표 메뉴는 삼겹살, 소갈비살, 한방백숙, 전복 삼겹살이다. 전복은 완도산으로 삼겹살과 싸먹으면 맛도 환상적, 든든한 보양이 된다. 최상급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상록구 안산천동로 170 (월피동)
031-439-5092/좌식 80석
주차장 전용/휴무 화요일



출처 맛집 안내 책자 <안산 생생 맛집 48>



독자투고

박정훈(상록구 성포동)



파이팅, 수암산!

새 보금자리 안산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년 6개월. 수암산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 부부는 연애시절부터 많은 산을 다니면서 산이 주는 고마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초여름 처음 수암산을 오르며 느꼈던 수암산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모습, 특히 사람으로 치면
요목조목 잘생긴 얼굴의 수암산이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산행은 우리보다 20년이나 먼저 안산으로 이사 와 안산 터줏대감이 된 부부와 함께 했다.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수암산이 아담하면서도 참 예쁜 산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가파른 오르막길은
계단이 잘 설치되어 있었고 힘들 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로프도 잘 정비되어 있어 산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됐다.
한걸음 한걸음 산을 오르는 과정은 무슨 동네잔치를 하는 것 같았다.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산에서 만났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화답하는 모습은 정답기 그지없었다.

수암산 정상인 수암봉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안산, 시흥, 안양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롯데월드타워까지.

황사가 있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맑은 하늘 사이로 멀리 롯데월드타워를 바라보자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해졌다. 우리는 수암봉에서 인생 샷을 찍으며 한참 동안이나 아름다운 수암산 자태를 감상하고 자연을 만끽했다.

수암산 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하고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사동에 있는 땀이골 전통음식거리로 향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저런! 수암산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갑자기 안산시청에서 '장상동 수암산 산불이 확산 중이니 등산객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받게 된 것이다. 불과 1시간 전에도 등산 중이었던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무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기원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일대에서 난 산불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 부부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마음만큼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로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다. 내 나라 내 고장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려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밤새 불에 타는 수암산을 보며 가슴이 정말 아팠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수암산과 약속하고 내려왔는데
수암산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수암산아! 언제나처럼 힘을 내렴! 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어 너무 고맙다!

안산 특특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면 5만원 상당의 원고료를 다온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독자투고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 36개월 이내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50자 내외, 아기사진



나비잠



강예은(여)



출생년월 2019년 7월

사랑하는 예은아♡ 엄마는 아직도 예은이와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작고 귀엽고 너무나도 예쁜 모습에 눈을 땔 수 없었단다. 그리고 예은이가 짧은 시간에 쑥쑥 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 이제는 엄마랑 대화도 잘하고 예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예은이는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아. 예은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 앞으로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자! 우리 예은이 많이 사랑하고 1000일 축하해^^♡

이승연(단원구 원곡동)

아기이름

안지유(여)



출생년월 2019년 6월

엄마 아빠 보물 지유야♡ 장난꾸러기 우리 지유~ 너의 눈부신 성장을 보면서 놀라움과 환희로 늘 행복한 엄마 아빠란다. 연년생 동생을 돌보느라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게 항상 미안해. 매일 자기 전에 엄마를 꼭 끌어안으면서 우리 엄마여서 고마워요라고 말해주는 지유가 엄마는 너무 고맙고 대견하단다. 너의 손을 잡을 때마다 항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엄마임을 다짐하면서 엄마도 너희여서 고맙고 우리라서 너무 행복해♡

김은선(상록구 시동)

아기이름

이해인(여)



출생년월 2021년 3월

사랑하는 우리 해인~♡ 해인이를 볼 때마다 항상 어리기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난 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네. 아빠가 품에 안아서 잠을 재우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빠가 안아주면 발길질을 하는 해인이..♡ 그래. 많이 컸구나. 우리 둘째딸 해인이 사랑한다..♡

이철승(단원구 외동)



4월 추천 도서

이달의 주제 내 마음은 열일중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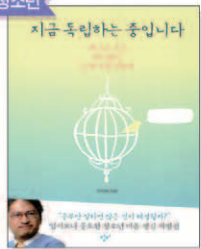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떡해요?

저자 제성은 | 출판 팜파스

4학년 도영이는 영재라고 소문이 났다. 영어 단어도 척척 알고 중학교 수학 문제도 선행하고 그림 실력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도영이 반에 영후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쾌활한 영후는 그림을 잘 그려 아이들은 절로 영후와 도영이를 비교한다. 도영이는 영후보다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믿지만 마음 한편에는 '뒤지면 어찌지?'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그러던 차에 도영이네 학교에서 영재 추천단 TV프로그램을 찍게 되는데...

청소년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저자 하지현 | 출판 참비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 주치의로도 활약하고 있는 하지현이 대한민국 청소년의 마음을 설명하고 조언하는 책을 냈다. 십대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부터 공부 스트레스, 친구 문제, 진로 불안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속 갈등과 고민을 담았다. 청소년 자녀의 심리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부모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저자 양재진, 양재웅 | 출판 21세기북스

양재진, 양재웅 저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사연과 심리상담 앱 '마인드카페'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고민하는 40가지 주제에 대한 실질적 처방을 담았다. 두 전문의와 직접 만나 대화하듯 진행되는 상담 안에는 의학적인 처방뿐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도 녹아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중앙도서관 전화 031-481-2703 | 홈페이지 <https://lib.ansan.go.kr>

2022 안산의 책

One City One Book

안산시민, 책으로 잇-다

일반

밝은 밤
최은영/문학동네/2021

청소년

시간을 건너는 집
김하연/특별한시제/2020

어린이

긴긴밤
루리/문학동네/2021

YouTube "안산도서관" 검색

• 안산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곳

- 안산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가입 서점
(대동서적, 한가람문고, 안산문고, 원곡서점, 도락도락 관촬아, 희망서적)
- 안산시 관내 학교 도서관
- 작가 인터뷰 & 낭독

안산중앙도서관 031-481-3868

경기도미술관 전시



2022 소장품전 <소장품으로 움직이기>

기간 2022.3.22.(화) ~ 2023.3.19.(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2층 전시실 1,2
전시 회화, 사진, 설치, 입체, 영상 등
(총 22점 25건)
참여작가 강상우, 박원주, 배영환, 손국연, 송영화,
안지산, 윤정미, 이불, 이상현, 이수경,
정서영, 정연두, 정재석, 정정엽,
조동환·조해준, 홍영인
관람료 무료

<지금 이따가 다음에>

기간 2022.4.5.(화) ~ 8.15.(월)
장소 경기도미술관 1층 프로젝트 갤러리
전시 회화, 드로잉 등 주변 풍경의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풍경이 지닌 시간성을 색점으로 환원하는 독창적인
작업을 발전시켜온 작가의 신작 전시 프로젝트
참여작가 박형진
관람료 무료

안산문화재단 공연



<윤환과 함께하는 아침음악살롱>

일시 2022.4.27.(수) 11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예정)

<안산시립국악단 기획연주>

일시 2022.4.21.(목) 19시30분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료 미정

안산문화재단 전시



<표암과 단원> 상설전시

기간 별도 기간 없음
(월요일 휴관)
장소 김홍도미술관
관람료 무료



2022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호랑이는 살아있다.>

기간 2022.3.25.(금) ~
5.22.(일)
(월요일 휴관)
장소 김홍도미술관 제1관
관람료 무료

<동서남북, 호랑이>

기간 2022.3.29.(화) ~ 5.8.(일) (월요일 휴관)
장소 김홍도미술관 제2관
관람료 유료

일반	할인(50%)	무료
2,000원	안산시민, 초·중·고, 군·경 등	미취학(~7세), 65세 이상, 장애인

대관 공연 등 더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문의전화
안산문화재단	www.ansanart.com	080-481-4000
경기도미술관	gmoma.ggcf.kr	031-481-7000

2022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2.5.31.(화) 18시까지
※예산 소진으로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2022.1~12월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 예정인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인하 구간	인센티브
최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0만원
700만원 이상	50만원

- 신청방법** ①온라인(<https://gmr.or.kr/>) 접수
② 현장접수(우편, 방문 등)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공인팀
-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5181-7183, 7188

2022년 안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안내

- 지원대상** 기준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4~2011년 출생)
* 기준일 : 2022.1.1. / 4.1. / 7.1. / 10.1.
* 저소득층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3만6천원 지역화폐로 지급 (연 최대 14만4천원)
- 지원방식** 신청인 휴대폰 경기지역화폐 앱에 모바일 카드 발급
- 구 매 처** 시중에 판매 중인 생리용품만 결제 가능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2022.12.31.(토)까지 사용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 2022년 한번 신청하면 재신청없이 분기마다 자동으로 지급
※ 2021년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할 필요없이 자격검증 후 자동 지급 예정
※ 만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반드시 보호자가 대리 신청

따끈따끈한 안산청년정책 준비되었으니 맛있게드세요!

이곳 저곳을 찾지 않아도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산시청년정책! 핸드폰으로 QR을 찍어보세요!
15세에서 39세까지!
나에게 맞는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월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특>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uiz 안산시 전역의 역사권화를 실현한 도심 순환버스 3개 노선
1 이 남부권, 서부권에 이어 최근 동부권 노선까지 완전 개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도심 순환버스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번호는 무엇일까요?

- ① 50번 ② 60번 ③ 70번

Quiz ○○유원지는 호수를 품은 도심 유원지로 사계절 내내
2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산책로와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체육시설 등이 마련돼 있어 복합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 ① 화랑유원지 ② 호수유원지 ③ 갈대유원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 주세요.
응모자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능)
*당첨자는 www.ansantalktalk.n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 4월 30일까지
3월 호 정답 ②, ①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평일 9~18시
장 소 안산시청 민원동 2층
이용대상 취업 희망 구직자
업무내용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문 의 031-481-2919

일자리 발굴 '기업 생생정보통' 운영

운영시간 평일 9~18시
신청대상 안산시 및 인근 지역 기업
참여혜택 맞춤형 인재 채용
구인광고 및 채용 비용 절감
채용 대행 등 서비스 제공
비대면 화상 면접장 이용

계층별(청년층) 직무역량 교육 프로그램

강 좌 명 6시그마-GB과정
지원대상 안산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모집기간 2022.3.21.(월) ~ 4.12.(금)
문 의 031-481-2923
※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JOB)'을 찾아드립니다

4월 매주 목요일 온라인 비대면 화상면접 운영

구분	행사명	행사규모	장소	문의
4월 7일(1주차)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구인업체 3개 / 구직자 20여명	한국산업 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031-481-2918
4월 14일(2주차)	상설면접	구인업체 1~3개 / 구직자 10여명		031-481-2930
4월 21일(3주차)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개 / 구직자 20여명	안산시청 제2별관	031-481-2919
4월 28일(4주차)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5개/구직자 20명	1층 화상면접장	031-481-2880
수시	상설면접	업체 요청 시 수시 진행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KBS뉴스 3월 7일
외국인 최다 거주 안산시,
우크라이나 돕기 캠페인



OBS 경인tv 3월 23일
뉴스 중심_안산시, 국제안전도시
인증 공식 선포



OBS 경인tv 3월 24일
뉴스 중심_안산산업역사박물관
준공...다음 달 시범 개관



MBN 3월 25일
전국 네트워크,
야생화 천국 풍도를 아시나요

아동의 **꿈** 과 **희망** 이
존중·실현되는 도시

안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인증



unicef 
for every child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ANSAN CITY